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이사야 60:1-7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앗수르의 위협과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의 틈바구니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유다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을 예언하신것입니다.
현재의 세계정세는 오늘 말씀의 2 절과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사 60:2)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것과 같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사 60:4-5)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는 뜻은 그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국들에게 침략당하고 속국으로 전락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니 온 세상이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음속의 좌절감, 무기력감을 벗어던지십시오.
생동과 활력이 가득한 빛, 번영과 축복이 넘치는 빛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 비전과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길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3)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옳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것을 배불리고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 달려 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 2:4)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 즉 선교사역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지상대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2. 교회의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며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개인의 부흥이 선행되어야 공동체의 부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 60:22)

위의 말씀처럼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우리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의로운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7-39)

③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 10:35)

인간이 갖는 담대함은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④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

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마 6:26)

먹이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 공중의 새는 새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며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⑤ 헌신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헌신하면 그 헌신에 합당한 복이 우리를 따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 재능, 물질을 드려 헌신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헌신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열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개인에게, 각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2:3 을 큰소리로 함께 읽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것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부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영역에 대해,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헌신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2019 년을 맞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헌신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함께 그 헌신에 동참해 봅시다.